변하지 않는 '나'는 없다

불교, K-드라마로 만나다

㉙ '뷰티인사이드'(2018)



'뷰티인사이드' 는 제목처럼 사랑에는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의미 있음을 보여 주는 드라마다.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매일 아침 세수를 하면서 얼굴을 살핀다. 주름이나 흰 머리카락이 늘지는 않았는지, 잡티가 생긴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다 새삼 세월을 탓하기도 한다. 내가 생각하는 나는 여전히 푸릇푸릇한 청춘인데, 거울 속에는 중년의 내가 있으니 말이다. 문득 어제의 나와 한 달 전의 나, 1년 전,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의 나…. 무심한 시간 속에 변해 온 나는 과거의 나와 같은 존재인가 아닌가 하는 근원적인 물음이 머릿속을 맴돈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까지 받으며 세계 시장을 노리는 정상급 배우 한세계(배우 서현진)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자고 일어나면 얼굴이 바뀌는 것이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몸 전체가 바뀌는 것인데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된다. 한 달에 한 번 대략 일주일 정도 다른 모습으로 있다가 다시 한세계의 모습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한세계의 출연 계약서에는 특별한 조항이 있다. 한 달 중에 일주일은 어떤 촬영도 하지 않고 어떤 스케줄도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계약은 계약일 뿐, 한세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계약서를 핑계로 어떤 일이 있어도 나타나지 않으니 그녀를 향한 방송가와 영화계의 시선은 좋지 않다. 오만하고 제멋대로인 배우라는 것이다.

한세계를 둘러싼 더한 비난도 있다. 집을 들락거리는 남자만 해도 수십 명인 데다가 인종도 제각각이어서, 한세계의 남성 편력이 어떻다느니 심지어는 숨겨 둔 아이까지 있다는 것. 이러한 추잡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소문을 만들어 낸다. 촬영장이 아니면 집에만 꼭 박혀 있는 그를 위해 요가 선생님, 가사 도우미, 피부 관리사, 하다못해 점쟁이까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세계에 대한 소문은 "시녀를 두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공주라더라"로 끝이 난다.

각종 댓글로 퍼져 나가는 수많은 이야기에 한세계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소문에 등장하는 그 모든 사람이 바로 자신이기 때문이다. 한세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둘뿐이다. 고등학교 동창이자 매니저인 유우미(배우 문지인)와 가톨릭 신부를 지망하는 소꿉친구 류은호(배우 안재현). 아, 한세계가 키우는 반려견 낑깡이 역시 단번에 한세계를 알아본다.

티로드항공 본부장 서도재(배우 이민기)는 촉망받는 재벌 3세 사업가로서 거칠 것 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런 그에게도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있다. 10년 전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로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경쟁의 정글에서 살아가는 사업가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은 치명적인 약점일 수밖에 없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서도재의 어머니는 아들을 보좌할 개인 비서를 붙였다. 비서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요령껏 알려 주면, 서도재가 알아보는 척 인사를 나누거나 말을 건네는 식이다.

물론 이 방법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그룹을 창건한 외할아버지의 후광이 있기는 하지만 서도재를 적대하는 이사들도 적지 않고, 무엇보다 새아버지의 딸인 의붓동생 강사라(배우 이다희)와는 오묘한 경쟁 관계다. 작은 약점 하나에 운명이 바뀔 수도 있는 처지에서 서도재는 자신의 비밀을 숨기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사람들이 자주 입는 옷, 손버릇, 걸음걸이, 향수 하나까지 모두 다 기억했고 부서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는 이름표를 달게 했다. 그러고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어디를 가든 항상 비서와 함께했다.

그런데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칠 수 없던 서도재의 삶이 한세계와의 만남으로 변화하기 시작한다. 티로드항공 모델이던 한세계는 자신을 둘러싼 추잡한 소문이 언론에 보도되자 병원으로 잠적하고, 서도재는 그녀를 찾아 병원에 갔다가 옥상에서 울고 있는 한세계를 만난다. 하지만 사람의 얼굴을 구분할 수 없는

외모 변화 여성과 안면인식장애 남성
두 사람의 사랑 가능한지 묻는 드라마
변하는 외모보다 내면 중시 사랑 그려
'테세우스의 배 역설'·무아 떠올리게 해
'나'는 오온이 '화합'한 상태로 늘 변해



'뷰티인사이드' 메인 포스터. 사진 출처=JTBC 공식 홈페이지

서도재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비서와 통화하며 한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통화 내용을 듣게 된 한세계는 기가 막힐 수밖에. 톱배우를 눈앞에 두고도 모르는 척하니, 나를 놀리는가 싶다.

'뷰티인사이드'의 출발은 2012년에 제작된 유명 컴퓨터 회사의 캠페인 광고였다. 매일 다른 사람 얼굴로 변하는 남자가 노트북 카메라로 자신을 촬영해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외모는 바뀌어도 내면에 간직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연인에게 전달하는 스토리로 화제가 됐다. 그리고 광고 이야기를 바탕으로 2015년에 영화 '뷰티인사이드'가 만들어졌다.

광고와 영화의 주인공은 매일 얼굴이 바뀌는 남성이지만 드라마는 한 달에 일정 기간만 변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남자 주인공에게는 안면인식장애라는 설정을 추가했다. 얼굴이 변하는 여자와 다른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남자의 이야기로 바뀐 것이다. 얼굴이 변하니 내가 누구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과 얼굴을 구별할 수 없으니 당신이 누구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만남, 과연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가능한지를 묻는 것이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뷰티인사이드〉의 주제는 분명하다. 제목에서 이미 보여 주듯 사랑에는 외모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의미 있다는 것. 이는 서도재의 대사에서도 드러난다. "걱정하지 마. 내가 사랑하는 건 겉에 있는 당신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당신이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단순한 주제 의식 외에도 드라마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를 제기한다. 한세계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후배 배우를 퇴치하는 장면이다. 한세계는 자신의 비밀을 터뜨리려는 배우에게 귓속말로 "변했으면 좋겠네. 변한 사이에 너 죽여 버리게. 그럼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넌 죽고 난 사라지는 거야. 이런 걸 완전범죄라고 하는 거지"라는 섬뜩한 경고를 한다.

한세계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배우에게 해코지를 한다면 이 행위는 한세계가 한 것인가, 아닌가? 외모가 변한 내가 한 일이 '내'가 한 일이 아니라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또 나의 변화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라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리스 신화에는 테세우스라는 영웅이 등장한다. 미노타우로스라는 괴물을 처치함으로써 아테네의 국가적 영웅이 된 인물이다. 테세우스에 대해서는 2세기에 편찬된 플루타르코스의 〈영웅전〉에 실린 내용이 널리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테세우스가 영웅적인 항해를 마치고 돌아오자 아테네 사람들은 몇백 년 동안이나 그 배를 보존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낡은 판자가 생길 때마다 그것을 떼어 내어 새 판자로 교체하는 일을 꾸준히 이어 갔다. 이때 몇백 년 동안 수리한 배는 원래와 같은 배인가, 다른 배인가?

이것이 그 유명한 '테세우스의 배 역설'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역설이 불교의 무아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좋은 재료가 된다. 애초의 변하지 않고 영원한 테세우스의 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 변화된 후대의 배를 두고 같은 배인지 다른 배인지를 다투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사람의 몸은 7년을 주기로 모든 세포가 바뀐다는데, 7년마다 세포가 바뀐다고 해서 7년 전의 나와 7년 후의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외형적으로 바뀌어도 서도재와 낑깡이는 한눈에 한세계를 알아보는 것처럼, 남녀노소 각각의 모습으로 변한 한세계 또한 모두 한세계의 실재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오온(五蘊)으로 되어 있다고 정의하는 불교에서는 그 오온 모두가 '화합'한 상태가 '나'라고 정의한다. 극단적인 예이기는 하지만 할아버지의 모습일 때에도 한세계고 아이의 모습일 때도 한세계며 외국인의 모습일 때도 한세계다. 그렇게 늘 변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데, 변하지 않는 나를 찾으려고 하니 진짜 '나'를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한세계의 절규와 같은 내레이션처럼.

"성별도, 나이도, 태어난 곳도 다른. 처음엔 죽고 싶었고, 그 다음엔 살고 싶었다. 살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얼굴은 바로 나였다."

마찬가지로 갓 태어났을 때의 나도,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을 때의 나도, 사춘기 시절,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모든 존재가 '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야 할 진짜 '나'는 무엇인가? 매일 아침 늙어감을 한탄할 시간조차 아깝다는 생각을 해 본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

일일시호일

"아빠, 걸을 수 있어요?"

다리 절단 위기의 이주노동자 아빠
7살 어린 아이의 희망을 지켜주세요

스리랑카 출신 타랑가 씨, 하지동맥 완전 폐색…수술했지만 재폐색
발가락 절단 우려 속 병원비 2100만 원…불자들 도움 절실히 필요



농협 301-0189-0356-5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070.4707.1080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